

사랑이 삶을 만들고 삶이 사랑을 만든다.

우리는 항상 사랑을 한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 형태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개인 속에 존재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항상 그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은 각자의 세계를 끊임없이 구축한다. 가족, 친구, 이성, 우리를 둘러싼 많은 개인들과 집단들에 각각 조금씩은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해나간다. 더 나아가 개인, 심지어 집단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은 사랑을 하는 자의 가치관과 행동을 지배하고 마침내 각자의 고유한 삶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개인의 삶이 절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이 사랑을 하게 될 때도 저마다 나름의 고유한 방식을 따라 그에 따른 태도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랑은 무수히 많은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비록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처한 조건들에 맞추어서 사랑의 형태를 적절하게 변화시켜나간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요소들이 사랑에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랑은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작가 이창래가 쓴 소설, '척하는 삶'의 주인공인 '하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위의 사실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가 가진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삶의 방식은 확실히 그가 사랑을 할 때 보이는 모습과 연결된다. 과거 회상이 많이 나타나는 책의 서술형식처럼 하타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과거부터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하타의 사랑은 개인적인 측면과 집단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두 권의 책이 가진 견해를 간단하게 이용해야만 한다. 개인과 개인,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의 아름다움, 순수한 본질에 주목하는 주장을 펼치는 플라톤 작 '향연'의 관점을 가지고 하타가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랑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 속의 구성원으로써 개인이 나타내는 변화와 사랑, 심리를 다룬 프로이트 작 '집단 심리학과 자아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하타가 가지는 마음, 사랑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측면의 접근 모두, 하타의 사랑을 통해 그의 더욱 복잡한 심리, 나아가 마침내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 후 마침내 사랑과 삶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척하는 삶'에서 주인공 하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인이며, 현재는 베들리런이라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Japanese-American이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고 가진 재산도 많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최고의 평화로운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타는 아주 복잡한 생각에 얽혀있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책 제목처럼 하타는 모두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척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진심으로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한 적이 거의 없는 듯 하다. 이런 그는 순수하게 온전히 마음을 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는 법마저 알지 못한다. 개인을 향한 사랑부터 집단까지. 하타는 모두 계산된, 필요에 의한 행동만 할 뿐이다. 하타가 사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은 많은 관계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우리는 하타와 타인, 둘이서 나누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첫 번째로 자신의 입양 딸인 씨니를 향한 하타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는 진정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가게 바로 앞에서 씨니가 코모경관과 심한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타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p125) 경찰로써 코모 경관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후에 말싸움이 격해졌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고 싸움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애초부터 자신의 딸이 경관과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정당성을 따질 것도 없이 막아 나섰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씨니가 남자들과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다가 뒤돌아서며 ‘더이상 내 친족이나 딸,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다....내 피는 이미 잊으려 하고 있다.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p166) 이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진정 씨니를 딸로 생각하고 부성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저 상황에서 지켜보며 그토록 이성적이고 냉정한 생각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 씨니를 입양한 것도 구로하타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지위와 품위에 맞는 남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런 어울리는 딸이 될 것이라는 소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저 하타는 씨니에게 자신의 소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해주어야 하는 의무와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녀를 딸로써 돌본 적은 없다고 여겨진다. 이는 씨니가 하타에게 “아무것도요. 저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아빠의 관심도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짜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평판을 얻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거기에 상처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p136)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녀가 느끼는 자신을 향한 하타의 마음과 “한 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나를 필요로 했지. 하지만 그 반대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어.”(p138) 라는 대화를 통해 하타와 씨니 사이의 갈등과 어떤 감정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씨니는 그를 아버지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것은 하타가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하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구로하타 가족결성이라는 필요에 의한, 목적을 위한 그의 사랑을 씨니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씨니는 그저 그가 부담스럽고 사랑을 사랑으로써 느끼지 못하여 집을 나가고 그로부터 도망친다. 하타의 이런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타가 씨니를 딸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도구로써 그녀를 여기기 때문인 것인지 혹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인지 대한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하지만 하타가 씨니를 진심을 다해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가 보여준 사랑이 진정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타가 가지는 사랑의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논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향연’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인지해야만 한다. ‘향연’이 내세우는 사랑이란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에로스라는 신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랑의 고귀한 가치를 숭배한다.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가 나누는 대화를 보면, 디오티마는 에로스를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정령이기 때문에 항상 결핍의 상태임과 동시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주장한다.(p118-122)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 즉 사랑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아름다운 것을 순수하게 좇는 목적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영원히 소유하려는 행위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하게 된다.(p126-128) 아가톤이 주장하는 사랑의 본성은 위와 같은 사랑의 힘에 더욱 타당성을 부여한다. 에로스, 사랑은 탁월성을 지니고 정의를 만들고 쾌락에 빠지지 않는 강력한 절제

력, 용기를 가지며 높은 기술(특히 예술적 창작)을 가능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분쟁 또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p96-102) 이처럼 '향연'은 사랑이란 개인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다른 개인에게 빠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마침내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고 서술한다.

이에 반해 하타의 사랑은 향연의 사랑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순수하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산된 도구로써 사랑을 이용하는 느낌을 준다.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사랑을 하는 것만 같다. 하지만 메리번스와의 관계에서의 하타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사랑의 감정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준다. 그는 메리번스와의 만남을 '메리 번스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을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처마 그늘에서, 새로 피어난 백합들 사이에서, 열대의 쾌활한 곡조가 공중을 향해 펼쳐지는 것 같았다. 영원히 기억할 만한 달콤한 느낌이 부풀어 오르는 파도처럼 내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와 나를 멀리 바다들 너머 어떤 곳으로 옮기려는 것 같았다.'(p73)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서 끌림을 느꼈고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와도 역시 좋지 않은 끝을 맺게 된다. 하타는 항상 지나치게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자신의 사랑을 통제한다. 그는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온전히 표현하지 못 한다. 이것이 늘 상대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든다.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타가 성장했던 그의 과거, 그가 겪었던 경험과 둘러싼 배경들을 돌아보아야만 한다. 하타는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나 일본에서 살았고 어린 나이에 일본인 부자 부부의 양자로 가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낯선 환경 속에서 자란 하타는 -둘 가운데 어느 부모에 대해서도 그들이 나를 길러 주었다는 말은 하지 못하겠다. 나를 길러 준 것은 목적을 가진 사회였지, 그 외에 아무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마울 따름이었다. 나는 불과 열두 살의 소년이었음에도 늘 사회의 불침번으로서 나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것, 내가 알 수 있거나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의탁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그의 과거를 회상한다.(p105-106) 하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낯선 것들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본능을 가지고 약착같이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는 사랑을 할 때에도 자신이 가지는 책임과 의무의 이행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이런 그의 굳어진 사고방식이 씨니와의 관계를 속에서 동일하게 고스란히 드러난다. '나는 씨니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드시 나한테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를 너저분한 고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떠날 수만 있으면 행복한 그곳에서 데려다가 비슷한 인종인 데다 충분한 자산까지 갖추고 기대에 부풀어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고마워할 줄 알았다.'(p106)이라는 그의 생각처럼 그는 누구나 그렇듯 그의 사고방식, 그의 틀에 맞추어 그만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만의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로서 그가 생각하는 의무와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씨니에게 제공해주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씨니도 감사함을 가지고 그에 부응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부자 부모에게 입양되어 훌륭한 양자로써, 부모가 그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또 명예로운 부자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이다. 그 후에도 일본장교로써 훌륭하게 군 생활을 수행하는 것, 미국으로 이민해서 낯선 환경, 낯선 인종 속에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씨니를

입양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서 그는 항상 살아남기 위해 그가 정해놓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이다. 사회의 구조가 그에게 원하는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는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산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

하타의 삶 속에서 집단이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타가 ‘어떤 장소에 있으면서 동시에 없는 느낌의 한 예. 그것은 내 삶의 오랜 조건처럼 보인다.....이것이 내 소속관계의 특징이다. 무엇이든 가까이 있는 것을 본떠 틀이 바뀌는 것.’(p400)이라고 자신의 삶을 정의한 것처럼 자신의 내면과는 다를지라도 보여지는 모습을 끊임없이 이상적으로 완성해나가면서까지 작은 무리에서부터 사회까지 다양한 집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타는 두렵고 외로웠을 것이다. 수족관의 포유류에 대한 설명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본령을 떠나 다른 영역으로 가 그곳의 자원에 의존해 살아야하는 끝없는 필연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이동이라 하더라도 늘 생존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이 매섭고 치명적인 존재 조건에 대해.’(p382) 이러한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낯선 환경에 부딪혀야만 했던 하타가 더욱 더 악착같이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이에 합당한 부단한 노력을 하며 동질성을 찾으려 하는 이유가 된다. 이는 프로이트의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을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개인은 수많은 집단의 구성요소이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고 아주 상이한 본보기에 따라 자신의 자아 이상을 세웠다.’ (p91)라고 정의한다. 하타가 동네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그들에게서 확인받는 것이다. 집단과의 사랑을 추구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분명하게 그는 여기서도 완전한 사랑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집단심리학’에서 시사했듯 집단이 형성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속의 개개인의 구성원들은 그 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따를만한 우상이 존재해야한다.(p45) 그것이 사람이든 어떠한 사상이든 구성원들을 이끄는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우상은 각 개인을 구성원으로써 소속되어 개인으로써의 특성을 일정부분 포기하면서 집단을 사랑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하타는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써의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집단의 어떠한 것이 아닌 그저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소속되었다는 인정을 받기만을 원한다. 따라서 하타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정상적으로, 옳은 동기를 가지고 그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것 또한 어려워 보인다.

하타의 인생이 그를 개인과 집단 두 측면들 속에서 모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들과 좋지 않은 결말이 되며 또 다른 그의 인생의 부분이 되었다. 일본 장교로 있던 시절, 전쟁 중 만난 위안부 여자아이인 끝애에게 하타는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 이 사랑 역시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하타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녀에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또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타가 여러 가지 그가 처해졌던 상황들 때문에 집단 안의 타인에게 그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의 말하자면 껍데기뿐인 사랑을 한다고 했다. 이렇듯 집단 안에서 하타는 자신의 의무, 책임들을 절대적으로 수행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개인적인 대상과 그의 관계 속에서 그가 가지게 되는 책임을 외면하고 피하려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에 오게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녀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타에게

자신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다면 자신을 죽여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p416) 하지만 하타는 하지 못했다. 심지어 끝애가 시부로에게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도 그는 그녀를 지켜주거나 맞서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p419) 그녀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아무런 행동도,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오랜 세월 죄의식이 그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끝애와의 관계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서인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씨니와 메리번스와 사랑을 할 때는 아예 이런 책임을 두려워하고 거부한다.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상대에 대한 책임감도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관계의 발전, 사랑의 발전을 차단한다. 앞서 말한 씨니의 나쁜 행동들(경관과 싸우는 모습, 남자들과 문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그저 방종하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뿐만 아니라 메리번스에게도 ‘그녀에게 집을 팔고 자기 집으로 이사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부서지며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다니, 이윽고 기쁨에 가득 찬 경이감으로 바뀌었다. 순간 나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p200)며 후회하는 모습 모두가 점점 깊어가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만큼 커져가는 의무를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발전, 사랑의 발전을 차단해 버린다.

‘나는 순수를 원했다기보다는 뒤로 거슬러 올라가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원했다. 시작 이전을 원했다. 내 모든 세월을 팔아 버리고 어떤 앞선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의문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p401) 하타는 집단 속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도, 다른 개인과의 둘만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몰랐고 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랑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과거가 싫을 것이다. 자신의 삶의 조각조각을 가능하다면 지우고 싶어 한다. ‘아무리 이상한 모습이라 해도 완전한 변형을 바랐던 것일까? 전혀 다른 심장과 껍질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것. 새로운 삶으로, 신선하고 희망적이고 구속되지 않은 삶으로 나를 데려다 줄 그런 변형.’(p383)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변화를 원한다. 그도 사랑을 정말로 원한다. 하지만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지금, 그는 분명히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커다란 갈망을 느낀다. 자연스레 사랑이 가지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그의 손자 토마스가 있다. 세월이 흐른 후 씨니와 재회하면서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씨니가 그에게 보여주는 사랑, 세월과 함께 누그러진 분노와 동시에 허락된 용서를 하타는 느끼게 된다. ‘나는 생각을 정지시킨다. 행복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맛을 오랫동안 고대해 왔기 때문에.’(p464) 씨니와 함께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마음이 오고가는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을 그대로 맡긴다. 또한 토마스와 씨니가 보여주는 그 사랑,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부모 자식의 사랑을 하타는 본다. 그것은 계산된 것 같은 행동도 아니었고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라는 규율에 얽매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한 번도 그가 씨니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또 그러했기에 받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마침내 본다. 마치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하타가 가졌던 오랫동안 굳어버린 사랑에 대한 감정의 한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하타는 끊임없이 사랑을 시도했지만 그의 과거는 그에게 사랑을 하는 방식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는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타는 이런 기분 좋은 변화를 겪으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사랑이 마침내 남은 인생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하타의 삶처럼 개인이 가지는 사랑이란 살아왔던 삶의 부분으로부터 형성되고 또 앞으로의 삶이 된다.